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24항)**



2019년 7월 22일 4시 22분(현지시간)
필리핀 이무스-카비테에서
펠리사 메리 에드워드 파체로 수녀님께서
향년 82세, 수도생활 51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축일을 지내는 동안, 성부께서는 우리의 자매 메리 에드워드를 새벽에 당신께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얼마나 많이 시편 62편에서 기도하듯,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투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라고 청하며 충만이 사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펠리사 수녀님은 5남매 중의 첫째로 1937년 4월 27일 이무스-카비테에서 태어났고 1955년 2월 8일 이무스 필라르의 우리 성모님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66년 10월 10일 이무스-카비테에 입회하여 이곳에서 초기 양성기를 보내고, 1967년 6월 28일에 필리핀에서 처음 시작한 수련기에 들어가셨습니다. 1968년 6월 29일 파사이 시 성바오로딸 수도회 경당에서 메리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첫서원을 하였고 1973년 6월 23일 이무스에서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은 수도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초기부터 교육환경에서 사목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셨고 이무스-카비테에서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1968년에서 1971년까지는 학교의 교사로, 1971년에서 1973년까지 그리고 이어서 1976년에서 1981년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1974년에는 만데즈-카비테의 공동체 원장으로 임명 받으셨고, 1983년에서 1986년까지 마닐라 톤도에서는 필리핀 부관구장 봉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사목을 하셨습니다. Blessed Sacrament 수녀회 소속인 동생과 교대로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몇 년간 (1986-1992; 1994-1996) 미국에서 지내셨습니다.

1992-1993년과 1997-2003년에는 탄자에서 가정사목과 기초공동체 사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하셨습니다. 2003년에 다시 이무스-카비테로 돌아오셔서 이 마지막 공동체에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원장으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의 양성장들은 그분을 깊은 내적 생활을 하고, 관대하고,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근면하며, 정의로 신중히 고려하고 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수녀님들은 그분을 올곧고, 기쁘고, 진취적이고, 견고하며 책임감 있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은 우리 수도회가 첫 걸음을 내 디딤은 이무스 출신으로 필리핀 수도회의 초창기를 위하여 많이 일하셨습니다.

2018년 말경,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의 건강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무스 공동체 수녀님들의 사랑 어린 돌봄과 동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모든 방문, 현존, 그분께 보여드린 자비의 몸짓에 감사하며 평온한 시선을 유지하셨습니다.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은 주님 안에서 신앙과 의탁의 증거를 자매들에게 남기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작별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수녀님과 같은 선물을 주신 성부를 찬미하고 투병기간 동안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을 자상하게 무상으로 돌보아 주신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에드워드 수녀님의 전구에 바오로 가족 성소의 해를 맡기며,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살고 전한다는 바오로적 수도생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오로 가족이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라는 은총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19 7월 22일 무투카(브라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축일에